

# 조경수 유통현황과 체계개선

양병이/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1. 머릿말

조경수는 조경공사의 기본적인 재료이고 조경을 통해 얻으려는 미적, 기능적, 그리고 생태적 효과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경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할 분야가 조경수의 생산과 유통 및 시공 그리고 식재설계인데 근래에 들어서는 오히려 관심이 소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경수의 유통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거의 방치되어 있었고 아직까지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수의 유통문제는 타농산물보다도 더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경수 품질의 질적하락을 가져오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경수의 유통현황과 문제점을 파헤쳐 보고 조경수의 유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2. 조경수의 유통실태

조경수는 다른 상품이나 건축용자재와는 달리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생명력을 가진 생산재료라는 점이고, 둘째는 생산과정이 길어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이며, 셋째는 소재 자체가 시공현장의 환경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는 장래의 수요가 불명확하다는 점, 다섯째는 수목수요의 변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공급을 변동시키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이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경수의 특수성때문에 조경수의 유통시장은 아직도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유통체계속에서 수목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생산자측에서는 생산된 수목의 판로가 막연한 데다 적정가격으로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실수요자는 우수한 품질의 필요한 수종을 구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나마도 적정가격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설계자들은 조경수의 생산실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설계에 포함된 조경수의 구득이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한 지를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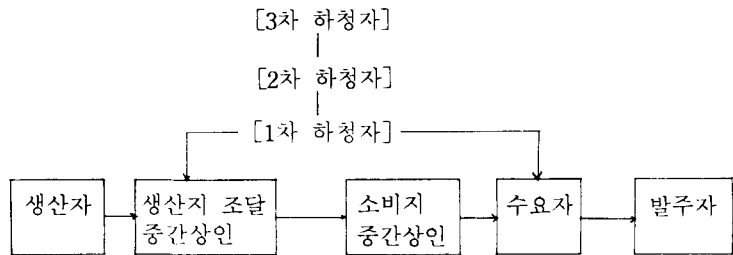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의 조경수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네가지의 경로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유형은 생산자-실수요자의 경로이고, 둘째 유형은 생산자-생산지조달 중간상인-실수요자의 경로이며, 셋



조경수의 유통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아직 그 대책도 마련치 못한 상황이다

째는 생산자-생산지조달 중간상인-소비지조달 중간상인-실 수요자의 경로이고, 마지막 유형은 생산자-소비지 중간상인-실수요자의 경로이다. 조경수목의 모든 유통경로가 이러한 기본적 유형대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실수요자와 중간상인의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중간단계의 하청이 발생하여 1차 하청자, 2차 하청자, 3차 하청자까지를 통해 유통이 이루어지는 변형이 있기도 하다.

또한 조경공사 발주자가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조경시공회사에 일괄공사를 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주한 시공회사를 실수요자로 보고 여기에 발주자라는 단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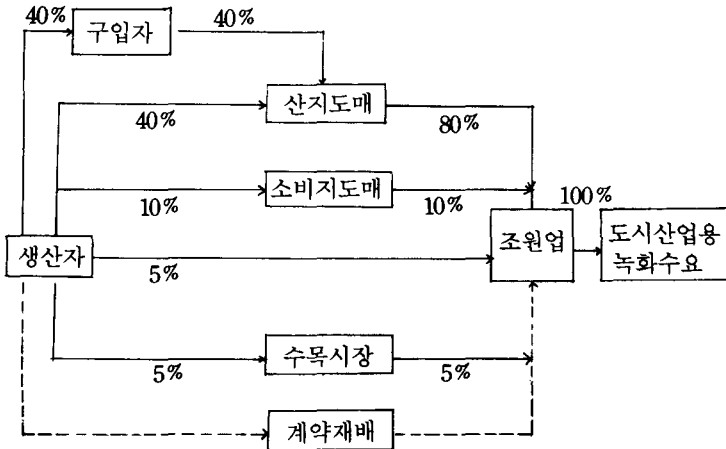
(도1) 우리나라 조경수 유통경로의 기본유형

추가된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조경수 유통경로의 유통경로별 비율에 관한 실태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한 연구(박태식과 김태옥, 1977)에 따르면 생산자-생산지조달 중간상인-실수요자의 경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생산자가 실수요자에게 직매하는 경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경우는 조경수의 유통경로가 사적(私的)수요와 공적(公的)수요의 유통경로가 상이한 데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비를 통해 공적수요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도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자와 실수요자간에 중개도매업자가 개입이 되어 유통되는 경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2) 일본의 조경수 유통경로 (공공수요의 경우)

있고 수목시장을 통하는 경로와 계약재배의 경로, 직판하는 경로가 있다. 일본에서의 공적수요의 경우는 산지도매업자를 거쳐 80%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산지도매업자에 의하여 유통시장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유통경로와 상이한 점은 수목시장을 통하는 경로와 계약재배에 의한 경로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조경수 유통경로를 유사성이 많은 화훼유통경로와 대비해 보면 화훼유통은 중간도산매 시장과 산지직판장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조경수목 유통경로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조경수 유통경로가 중간상인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중간상인만큼 조경수의 수종별 생산현황과 수요자를 많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수목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생산자 조달 중간상인들은 거의 전국에 걸친 생산업자의 조경수목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소비지 중간상인들은 수요처와 수요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생산자 조달 중간상인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중간상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 3. 조경수 유통의 문제점

#### 가. 여러단계의 유통과정과 유통구조의 복잡성

우리나라의 조경수 유통 실태를 살펴본 바와 같이 조경수의 유통경로는 기본적으로 네가지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간단계의 하청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의 중간단계가 여러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조경수의 유통과정에서 중간단계가 많아질수록 각 단계마다 중간이윤을 포함한 중

간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생산자의 판매가격은 낮게 마련이고 실수요자의 구입가격은 높아지게 되는 악영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유통구조가 복잡해지면 조경수의 품질에 대한 책임도 애매해질 뿐 아니라 불성실한 중간상인은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 과다적재를 행하는 등으로 더욱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많다.

#### 나. 조경수 유통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전파기능의 부재

일반상품의 유통과 마찬가지로 조경수목의 유통과정에서도 유통정보가 매우 중요하고 조경수의 생산과 수요가 유통정보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데 조경수목의 유통정보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파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나 단체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조경수의 생산현황에 대한 자료는 총량적인 자료만을 산림청, 조달청, 한국조경수협회등과 발주처 별로 부분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정확성이 없고 규격별로 조사되어 있지 않아 실용적인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또한 수요현황에 대한 자료는 공공기관 발주처 별로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이것도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수 생산자들은 생산현황뿐 아니라 수요상황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어 생산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판로의 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조경수의 유통은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거의 방치되어 있었고 아직까지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조경수의 유통 문제는 타농산물보다 더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경수 품질의 질적저하를 가져오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경수의 유통현황과 문제점을 파헤치고 유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99

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생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경수 구득에 어려움이 있고 가격이 맞지 않아 원하는 수종을 구입하지 못하는 등의 애로를 가지고 있다. 조정설계를 담당하는 설계가들도 조경수의 생산이나 유통정보가 없기 때문에 구할수 없는 수종을 선택한다든지 가격이 전혀 맞지 않는 수종을 선택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 설계를 변경시키게 되어 소기의 조정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 다. 유통수목의 비규격화

현행 유통되는 조경수는 거의 대부분 수고, 수관폭, 흉고직경, 근원경, 지하고등을 근거로 규격이 결정되고 단가가 매겨져 유통되고 있다. 이들 규격만으로는 실제 조경수목의 품질을 알 수가 없으며 규격도 유통성을 많이 가질 수 있다. 즉 같은 규격의 수목이라도 품질의 차이가 다양하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실제로 원하는 품질의 수목의 규격을 현행규격대로 정하여 발주를 했을 때 납품되는 조경수는 품질이 형편없으면서

도 규격에 맞는 수목이 납품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조경수의 규격결정은 오히려 하자발생율을 높일수가 있으며 중간상인들에게 유통성을 부릴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된다.

#### 라. 덤핑판매의 발생

조경수 생산자의 긴급한 자금 수요, 조경수재배지의 타용도로의 전환, 불량목 처리등의 이유로 인해 조경수를 헐값에 팔아버리는 덤핑판매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덤핑판매되는 조경수들은 대체적으로 품질이 저질인 수목이 많기 때문에 하자발생율도 높을뿐 아니라 조경수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조경수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며 중간상인들의 이윤을 많이 해줌으로서 중간상인들이 덤핑판매되는 수목을 더 선호하게 해준다.

#### 마. 중간상인의 영세성

현재 우리나라 조경수의 유통시장은 중간상인에 의해 거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간상인들은 극소수를 제

외하고는 자본이 영세하기 때문에 수목을 직접 확보해 두었다가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수요자에게서 선금을 받아 수목을 구입, 알선하는 중개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간상인들은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조경수 유통시장에서의 중간상인들은 자본의 측면으로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신뢰성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4. 조경수 유통체계의 개선 방안

#### 가. 조경수의 품질규격 표준화

공산품등은 그 품질을 관리하고 품질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KS나 Q, GD등의 마크를 붙여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는 이러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품질향상을 기하고 소비자는 이러한 기준을 믿고서 기준에 합격된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

조경수는 현재 외형상의 규격



학계, 관계, 조경업계, 조경수생산자 등이 다같이 참여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현재 방식보다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 수고, 수관폭, 흉고직경, 근원경, 지하고등만을 가지고 수목단가가 결정되고 유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목품질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같은 규격의 수목이라도 품질은 천차만별인 것이며 이로 인해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공공용 조경수목의 경우는 외형상의 규격뿐 아니라 품질규격까지 기준을 정하여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장기적으로 품질규격의 기준을 정해 품질이 규제되고 관리되도록 하고 가격도 품질에 따라 달라지게 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수목의 규격을 촌법(寸法)과 품질의 양면의 기

준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품질은 수자(樹姿)와 수세(樹勢)로 대별하여 정한다. 수자는 수형(樹形), 간(幹), 지엽(枝葉)의 분배, 지하(枝下)의 항목으로 표시하고 수세는 생육, 근(根), 지(枝), 병충해 등 여러가지 항목을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규격기준이 우리실정에 가장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항목을 이용해 규격기준을 정할 것인지 충분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규격기준을 정하는 데는 4년간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볼 때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유통구조의 체계적 정비

이미 문제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조경수 유통구조는 중간상인과 하청자가 중간단계에 개입되기 때문에 복잡한 유통경로를 겪고 있어 중간단계의 이윤이 많아지고 품질에 대한 책임도 모호해 지므로 조경수의 생산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손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경수의 유통체계는 가능한한 조경수 생산자를 보호 육성하고 실수요자에게 적정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단일유통체계가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방식으로 조경수 유통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들로서는 공공기관(예를들면 조경수협회, 산림조합등)등에서 계통적인 유통경로를 밟아 판매, 처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조경수 생산자와 실수요자가 계약을 하여 계약재배를 하는 방안도 생산자와 실수요자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 하다.

다. 조경수 유통정보 체계의 확립

현재 조경수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정보는 중간상인을 비롯한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독점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들 역시 완벽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조경수 생산자와 수요자는 정보의 부재로 항상 불안해

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생산계획이나 수요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계획생산과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수요자는 이상적인 조정설계와 적합한 수종을 적정가격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정수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일본에서는 일본녹화센터나 일본식목협회등에서 활발하게 조정수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단체들이 활발히 정보의 수집과 전파의 역할을 담당하는게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조정수는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조정수의 수요동향 및 수종별 물량 정보는 생산자의 생산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조정수의 대량 수요자인 공공기관들이 조정수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인 3~5년전에 수종별 사용규격 및 예상수량을 미리 예고하는 예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자의 생산계획에도움을 주고 수요물량확보도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 라. 조정수 생산유통 담당 부서의 확립

조경의 업무가 확대되어가고 있고 조정수의 생산과 유통도

점차 확대되어 가는데도 정부내에는 아직 조경업무와 조정수를 전담하는 부서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농업의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소득작물의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며 조정수의 재배는 이러한 시대적요청에 부합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육성시켜야 할 분야라고 판단된다.

특히 조정수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생산이 필요하고 수요 역시 생산되는 물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수급동향을 예측하고 조절해주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정부내의 담당부서가 필요하다. 이미 화훼의 경우는 농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담당을 해서 육성하고자 하는데 유사한 품종인 조정수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마. 조정수 가격의 합리적 결정

조정수 가격은 정부의 공사에서 주로 기준이 되고 있는 조달청의 고시가격이 있는가 하면 한국조경수협회에서 매년 결정하는 협회 조정수가격이 있으며 이외에도 공인 물가조사기관중 4개 기관에서 조사, 결정하는 가

격이 있다. 조달청 고시가격은 조정수의 가장 많은 수요처인 정부공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조정수의 생산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가격고시된 수종은 정부공사에서 사용이 되는 수종이라는 점에서 고시된 수종에 조정수생산이 집중되는 반면에 고시되지 않은 수종은 생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고시가격이 현실가격보다 높은 수종은 많이 생산되고 가격이 현실가격보다 못한 수종은 생산을 위축시키게 한다.

지금까지의 조달청 고시가격의 결정과정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조정공사시에 조달청의 가격이 현실가격과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수종이냐에 따라 일부수종은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일부수종은 실제가격보다 높아 흑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조정수의 가격결정이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완벽한 방법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학계, 관계, 조경업계, 조정수생산자 등이 다같이 참여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현재 방식보다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